

도내 1인가구 증가 맞춤형 정책 필요

도내 1인 가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관련 맞춤형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1인 가구는 21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4%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1%보다 3.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또 전북의 1인 가구는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33.6%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7.7%로 가파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의 1인 가구는 노인 1인 가구가 40%를 차지하고 성비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72.3%를 차지해 청장년 1인

21만3000가구로 전체 30.4% 차지 전국 평균 27.1%보다 3.3%p 높아

가구 비율이 높은 수도권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솔로 이코노미스트 확대'와 여성 및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안전 욕구 증가', 그리고 1인 가구의 새로운 여가 문화 트렌드로서의 '혼족 문화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방향이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북 1인 가구 맞춤형

정책과 1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비한 전북 여가문화 상품개발 등을 제안했다.

우선 불안한 소득과 주거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 정책 강화와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위험사회에 대응한 지역안전체계 구축과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확대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인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식당메뉴 개발, 1인 여행자들을 위한 여플, 1인 전복투어패스 상품 등을 마련하고 예술공연과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도 1인 럭셔리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싱글족의 증가와 그에 따른 혼족문화 출현은 미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정책서비스의 방향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위기가 자 기회요소인 1인 가구 증가를 활용한 공격적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새로운 부가가치의 분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나서

33개 동 대상 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6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올마당에서 전주시 33개 동 전 동장을 대상으로 2016년도 온두레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주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온두레 공동체 사업 2차년도를 맞아, 시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동장이 앞장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도 온두레 공동체 운영현황 및 2017년도 공동체 사업계획 설명으로 문을 연 이날 설명회는 공동체 활

동 이해와 사례 위주의 특강도 진행됐다. 시는 올해 온두레 공동체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디딤단계와 2단계 사업인 이음단계로 나뉘며,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공동체 중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이음단계 공동체 12곳과 11개 마을공동체, 40개 소규모 공동체 등 63개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다.

박선이 전주시 사회경제적지원담당장은 이날 "올해 시정의 모토인 '더 시민 결으로, 더 서민 결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동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2016년도 온두레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와 2017년도 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여중생 성추행 체육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중학교 교사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B양(13)의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품을 손바닥으로 두드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에도 학교 강당에서 "요즘 나한테 소홀한 것 같아"라며 B양의 손과 팔을 수차례 주무르는 등 총 3차례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산업보건센터 증축 개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 한방병원 개원식이 6일 현대차 전주공장 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열렸다.

전주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1994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

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과잉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사업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또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장이 심각한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철수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대규모 공용주차장 조성도 필요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 내 집 주차장 그린과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택가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귀가 여성 납치미수 20대 검거

심야시간대 도로로 귀가하던 여성을 덮쳐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안산경찰서는 6일 도로로 귀가하는 피해자 이모(23·여)씨를 뒤에서 달려들어 입을 막고 인근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납치미수)로 백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27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도로로 귀가하는 이씨를 납치하려 했으나, 백씨의 거센 반항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범죄 대응 특별 형사활동 등을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해 동일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근 CCTV를 검색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파란색 티셔츠와 검정색 7보 바지를 입은 170cm 정도의 건장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안진수 기자

보이스피싱 외국인 경찰 잠복수사에 덜미

1억여원 인출 미수 혐의 구속 "관광하러 왔다" 완강히 부인

노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통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속인 뒤 1억원이 넘는 돈을 훔치려 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노인을 속여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 주거침입 등)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40분께 완주군 삼례읍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에 전화에 속아 은행

에서 예금을 인출한 B(62·여)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억2800만원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농협 직원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만나 대화를 나눠본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하고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해 잠복했고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범이 B씨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게 한 뒤 집 밖으로 유인한 사이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한국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입국한 뒤 강릉과 삼척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5500만원을 훔쳤으며 삼례에서 미수에 그친 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절도 미수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했다.

경찰이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근거로 추궁하자 그제야 A씨도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고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건당 최대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차량 훔쳐 타고 도주한 10대들 경찰 추격 검거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도주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6일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가 꽂혀 있자 시동을 걸어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8)군과 정모(18)군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18분께 익산시 선화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등록하고, 추적이 나섰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

해 익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해 달아나다 김제시 만경읍 인근에서 도난차량을 버리고 도로로 재차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학교 선배 사 이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르던 중 차량 내부에서 열쇠가 발견되자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차량 내부에 차키를 보고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동종전과가 있고 정군은 5월에 소년원에서 나와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